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제344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23일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던 하반기 군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의원들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김광수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앞장서서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가장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정례회에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아웃리치' 추진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모양성제 축제기간 중 지역 청소년을 만나 '찾아가는 거리상담 아웃리치'를 추진했다.

청소년 아웃리치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고 대상자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찾아와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치와 청소년전화 1388 인지도 조사와 청소년의 고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청소년의 흥미 유발과 집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놀거리로 스크래치 페이퍼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34회 정읍사문화제 개최

정읍사공원 일원서 진행… KBS전국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백제시대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34회 정읍사문화제'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정읍사문화제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백제가요인 '정읍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정읍사 여인의 아름다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34년간 지속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문화제는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제29회 시민의 날과 함께 기념식을 진행한다.

문화제가 펼쳐지는 정읍사공원은 문화제의 주제인 '천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정읍사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 공간을 구성했다. 설화를 토대로 한 망부상이 공원을 지키고 있고, 정읍사 이야기 벽, 사모정, 사랑의 계단 등이 조성돼 있어 가족과 연인이 특별한 추억을 쌓기에 좋다.

문화제 첫날인 28일은 정읍사 여인을 추모하고 부부애와 가족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채수의례와 정읍사 여인제례 등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채수의례는 정읍사 서사의 배경인 정해마을에서 맑은 샘물을 긷는 의식이다. 여인제례는 지아비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돼버린 정읍사 여인의 마음을 달래는 제사 형태의 의례다.

이후 시립예술단의 공연과 기념식, 축하공연이 이어지고 불꽃놀이와 정읍사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러브판타지쇼'가 진행된다.

이튿날인 29일은 화려한 공연의 장으로 꾸몄다. 먼저 국내 최장수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가 진행된다. 시는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장을 제공하고자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추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부안군, '홍재일기로 본 격동기 조선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인식' 주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및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오는 26일 11시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홍재일기로 본 격동기 조선 사회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재일기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부안군 주산면에서 살았던 기행현(奇幸鉉)이 1866년부터 1911년까지 약 45년간 일상을 기록한 일기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국가등록문화재로 신청돼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고 있다.

특히 홍재일기는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집결일이 1894년 3월 26일이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전후 조선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영우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의 기조강연(홍재일기의 사료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과 홍재일기 소장자인 기곤씨의 인사와 함께 모두 5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유바다 고려대 교수),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기 부안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재일기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 조선 사회의 변동 양상(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 네트워크(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홍재일기로 본 조선후기 지명 연구(김병남 전북대 교수) 등이다.

이어 김양식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준성(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왕현종(연세대 교수), 김철배(임실군청 주무관), 김희태(전라남도 문화재위원), 김경성(부안문화원 사무국장) 등 지역 연구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지역과 연계하는 학술대회를 적극 추진해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및 연구 활성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홍재일기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통해 부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동북아 크루즈 발전 포럼 개최

동북아 크루즈 산업 전략 · 대응 논의

크루즈를 통해 전북 발전을 논의하는 포럼이 지난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에 대응한 전라북도 크루즈 인프라 조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부안 격포항 크루즈 기항지 조성에 대응한 전라북도 크루즈 산업 발전과 전북도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포럼의 좌장은 부안군 최연곤 경제산업국장이 맡았으며 김정기·김슬지 전북도의원, 방선동 전북도민일보기자, 전북도청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진관 관광산업과장, 신형춘 해양항만과장,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 중국 크루즈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특히 참석자 중에는 중국의 보하이 크루즈 관리 유한공사 쏜치엔찐 총경리를 비롯해 후인칭 오션드림 인터네셔널 크루즈 총감, 까오원링 천진 크루즈요트협회 사무총장 등 중국 크루즈 산업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한국국제크루즈연구원(KICI) 박원형 국장은 부안 변산반도와 산둥반도의 역사적 연계성과 함께 전북 기항지 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설명하고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크루즈기항지 조성의 '2port+1'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제5회 고창농악한마당축제' 열려

고창군은 올해 5회째를 맞는 고창농악한마당축제가 고창농악단연합회(회장 서정순) 주관으로 지난 22일 모양성 앞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농악한마당축제는 '제50회 모양성제' 축제 기간에 열려 수많은 관광객들의 관심 속에 더욱 성대하게 열렸다.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려 지역 문화예술행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흥덕농협팀(흥덕, 신림, 성내), 상하장사농악단, 선운산농협팀(아산, 무장, 공음), 대성농협팀(대산, 성송), 해리해풍농악단, 고창부안농협팀(고창, 고수, 부안) 순으로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세계인류무형유산에 지정된 농악의 흥과 멋을 주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여 농악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영예의 대상은 대성농협팀(대산?성송)이 차지했다. 얼씨구상은 상하장사농악단, 아차상은 흥덕농협팀 등이 수상했고, 개인연기상으로는 정상기(흥덕농협팀), 최보선(해리해풍농악단), 김병희(선운산농협팀)씨가 각각 수상했다.

경연대회 외에도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인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의 축하공연과 행운권 추첨으로 경연팀을 비롯한 축제에 참여한 많은 이들의 흥을 더욱 돋았다.

서정순 고창농악단연합회장은 "올 한해동안 열정을 다해 노력해주신 읍면 농악단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 축제가 승패를 떠나 우리 농악인 모두가 즐겁고 흥겨운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고창농악한마당축제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고창농악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고창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과정 모집

정읍시는 시민에게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전북과학대학교와 함께 전북 최초로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 과정'을 개발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는 시와 전북과학대의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의 평생학습을 확대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15주간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평생학습 정책, 트렌드, 학습자원 발굴, 성인학습자 특성 이해 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10명이며 평생교육과 관련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학습 기간은 11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며, 신청은 전북과학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수강료와 재료비 등은 전액 무료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주민이 사는 평생학습도시"라며 "현장에 필요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문가적 역량을 겸비한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